

# 과학기술자의 24時

화학은 물질에 관한 과학이라고 한다. 여러 가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. 이렇게 보면 꽤나 매력적인 학문이다. 그러나, 고등학교 다닐 때 화학을 배우면서는 외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사실 그리 매력적인 과목은 아니었다. 특히 같은 과학 과목으로서 물리에 비해 까다로운 것도 사실이었다.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 화학을 나와는 그리 인연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. 그러던 것이 학부, 석사, 그리고 지금은 박사과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생각하면 「사람팔자 모른다」는 말이 저절로 떠올라 우습기도 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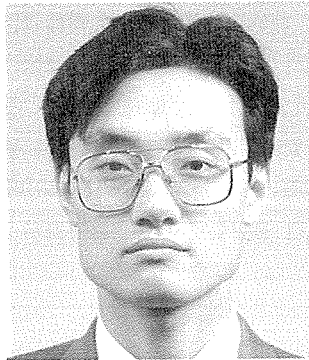
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대통령과 함께 가장 많은 대답이 과학자라는 말을 들었다. 나의 경우도 어렸을 때 꿈은 과학자였다. 과학자하면 떠오르는 것은 하얀 실험가운을 입고 무엇인가 열심히 생각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것저것 등을 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다. 과학, 과학자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멋있다. 혹은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.

대학에 들어와서는 강의와 시험, 보고서 등으로 인해 별로 깊이 있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화학 아니 더 나아가서 과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.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(?) 시기에 학교생활을 해서 더욱더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.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는 문제가 달라졌다. 대학원 생활은 연

구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부와는 달리 교과과정 이외에 연구활동이 부가된다. 학부에서는 연구활동이라는 것이 뚜렷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게 마련이다.

연구활동의 근간은 물론 논문준비를 위한 것들이 주(主)이다. 여러 가

## 캠 퍼 스 發 言 臺



趙 承 濟

(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)

지 연구활동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 생각했던 과학자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나도 가지게 된 것 같아 무척이나 기분 좋을 때도 있다. 한편으로는 실망을 할 때도 있다. 실망스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과학에 대한 지원 부족이라 할 것이다. 최근 10여년 동안 사정이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.

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라고 한

다. 이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감할 수는 있을 것이다.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.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만 21세기는 우리에게도 과학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다.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. 외국의 산학협동체제를 보면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. 기업체에서는 학교에 지원이나 연계를 꺼리며 그 이유가 별로 '득(得)이 없을 것'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.

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. 또 다른 실망의 원인은 함께 일하려 하지않는다는 것이다. 최근 학문의 경향 자체가 세분화로 가다보니 다방면에 능통한 전문가가 드물어진 게 사실이다. 이러한 상태에서 공동연구는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강한 듯 하다. 전통적으로 공동체의식을 중시했던 우리나라의 연구활동이 개인주의를 표방했던 서양의 그것보다 더욱 개인적인 것으로 흐르는 듯 하다.

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열악하다는 것은 과학기술부문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. 어쩌면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에 본인은 속해 있다.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이 늦도록 혹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열중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있다. 그런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계속 분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과학기술을 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.